

## ■ 기념 예식과 축제 속에서 길들여진 불만과 도전

박 구 병

16세기 중엽 정복의 물결이 잦아든 뒤 멕시코와 페루 지역에는 각기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副王領)과 페루 부왕령<sup>5)</sup>이 설치되었다. 1600년경에는 농민이나 하급관리 출신이 주축을 이루던 정복자의 시대가 끝나고, 스페인 왕실과 식민지 최고 통치자인 부왕(副王)을 거쳐 법률가와 관리들로 연결되는 식민지 행정 체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주요 도시와 지역 거점이 스페인 식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지만 농촌에서는 원주민의 전통과 관행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스페인 식민 통치의 성패는 사실상 쿠라카쿠나(kurakakuna)<sup>6)</sup>, 즉 원주민 지도자들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었다.

쿠라카쿠나는 세습적 지위를 누려 온 잉카의 전통적 지배층이었지만 16세기 말에야 식민지 행정기구에 의해 법적 신분이 인정되었다. 1571년 부왕 프란시스코 데 톨레도(Francisco de Toledo)는 당시까지 쿠라카쿠나에게 임시방편으로 승인되었던 여러 직위와 명예 특권을 제도화했다. 17세기 초에 이르러 쿠라카쿠나의 세습과 상속 규정은 스페인의 법에 명시되었다. 쿠라카쿠나는 공

5) 18세기에 이르러 페루 부왕령에서 누에바그라나다(현재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1717, 1739)와 라플라타(Río de la Plata, 현재 아르헨티나, 1776) 부왕령이 갈라져 나와 결국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부왕령은 모두 4곳이 되었다.

6) 이는 안데스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도자를 통칭하는 단어로서 단수형은 쿠라카(kuraka)다. 카리브 해 지역과 멕시코의 카시케(cacique)와 유사한 범주로 볼 수 있다.



프란시스코 데 톨레도

납과 미타(mita) 또는 강제 노역(corvée)을 면제받았고 공동체를 대표해 급료를 받았다. 또 그들은 교회에서 사제 곁의 상석(上席)을 제공받거나 종교 의례의 행진에서 성상(聖像)을 들 수 있었다. 요컨대 쿠라카쿠나의 특권은 스페인 하급귀족 이달고(hidalgo)의 권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물질적 혜택과 명예 특권을 누리

게 된 쿠라카쿠나는 적극적으로 스페인어와 법률을 배우고 가톨릭을 받아들인 반면, 대다수 원주민들은 단지 노동력의 원천으로서 식민지 사회의 수동적인 참여자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예술사 전공 교수 토머스 커민스(Thomas B. F. Cummins)는 식민 시대의 그림 속에서 쿠라카쿠나뿐만 아니라 예전의 잉카 왕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그런 재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sup>7)</sup> 민스에 따르면 스페인인들은 안데스의 유산을 상기시켜 주는 원주민들의 전통적 재현 방식을 근절하고자 노력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원주민 지도자들의 면모를 표현했다. 유럽풍의 초상화는 쿠라카쿠나의 원주민적 속성을 약화시키고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비롯되는 권력과 부의 위계질서에 그들을 종속시키는 일종의 입회 의례였다. 초상화 속의 쿠라카쿠나와 예전 잉카 왕들은 위세의 상

7) Thomas B. F. Cummins (1991), "We Are the Other: Peruvian Portraits of Colonial Kurakakuna," in Kenneth J. Andrien & Rolena Adorno (eds.), *Transatlantic Encounters: Europeans and Andeans in the Sixteenth Centur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03-231.

징으로 예외 없이 스페인 식 의복을 착용하고 스페인의 고관대작과 같은 자세를 취했다.

또한 커민스는 1555년부터 1756년까지 스페인 왕의 대관식이나 혼인예식을 기념하기 위해 거행된 쿠스코, 포토시, 리마 등지의 축제에서 원주민들이 선보인 가장행렬에 주목했다. 가장행렬에 참여한 쿠라카쿠나와 그 자녀들은 예전 잉카 왕 12명의 모습을 재연했다. 가장행렬은 각



아타왈파 (1500 - 1533)

잉카의 치세에 벌어진 특기할 만한 사건들을 보여 주었고 흔히 아타왈파의 처형 장면으로 끝을 맺었다. 또 카를로스 1세로부터 당대 왕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군주들의 초상화를 든 남성들이 가장행렬 참가자들의 뒤를 따랐으며 의관을 갖춘 쿠라카가 왕의 초상화나 가장행렬 가운데 최고위직 통치자의 역할을 맡은 이 앞에서 허리를 굽혀 절함으로써 기념 예식은 막을 내렸다.

초상화와 마찬가지로 가장행렬과 기념 예식은 쿠라카쿠나의 권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식민 지배 세력의 권위에 대한 원주민들의 복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안데스의 조상 숭배 전통에서 유래된 잉카 왕들의 행진 의례는 결국 스페인 식 종교·정치 행사 속에 포섭되었다. 가장행렬과 기념 예식은 잉카의 마지막 통치자들과 그들을 정복한 스페인의 통치 세력 간에 뚜렷한 순차를 확립하고 안데스의 과거를 전시하는 동시에 그것을 '현재'와 확실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게끔 유도했다. 그리하여 안데스의 유산과 정체성은 스페인인들의 정복 이전에만 존



알타왈파는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이 그림에서는 참수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어떤 그림 속에서도 아타왈파의 뒤를 이어 정복자들에게 저항한 잉카의 마지막 세 통치자[망코 잉카(Manco Inca)와 두 아들 티투쿠시(Titu Cusi), 투팍 아마루(Tupac Amaru)]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sup>8)</sup> 아타왈파의 죽음이 페루 전역에서 무대에 올려졌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지배권에서 허용되는 안데스 정체성의 요체가 된 반면, 1571년 참수당한 잉카의 마지막 통치자 투팍 아마루, 즉 위험한 표본의 죽음은 결코 재연되지 않았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실제 교살당한 아타왈파의 최후를 참수형으로 바꾸어 재연함으로써 투팍 아마루의 비극적인 죽음을 잊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식민 지배 세력은 안데스의 전통과 유산에 대한 원주민들의 감상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했다. 자신감의 표현이었을까? 1711년 페루를 방문한 프랑스 출신의 여행자 프레지에르(Améde Frézier)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 축제 기간 동안 원주민들은 곳곳에서 잉카의 옛 의상을 입고 가두 행진을 벌였으며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아타왈파를 처형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원주

8) Cummins, pp. 223-224.

민들은 아타왈파를 잊지 않았다. 옛 왕에게 품은 애정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 시대에 대해 한숨짓는다”고 프레지에르는 적었다. 이 기록과 더불어 1748년 부왕 호세 만소 데 벨라스코(José Manso de Velasco)가 한 기념행사를 목격한 뒤 남긴 발언에서도 비극적인 과거사의 재연이 원주민들로 하여금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대면하게 함으로써 체념 의식과 숙명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유럽인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페루에서 잉카의 과거를 부각시키면서 전면적인 변화를 지향한 반란이 실제 드물지 않게 발생했지만 그것은 대개 쿠라카쿠나의 협조나 묵인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잉카 원주민들의 가장행렬 사례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불만의 배출구이자 용인(容認)된 도전이라는 점에서 1890년대 멕시코 시의 경마 클럽에서 펼쳐진 독특한 의례를 상기시킨다. 멕시코 혁명 이전과 혁명기의 문화사 연구에 주력해 온 역사가 윌리엄 비즐리(William H. Beezley)는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통치기(Porfiriato)에 경마 클럽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목격한 ‘유다 화형식’에 주목하고 그 의미와 기능을 고찰했다.<sup>9)</sup> 그것은 성(聖)토요일, 즉 부활절 전날(‘작은 부활절’로 부르기도 함)에 예수를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Judas Iscariot)의 형상(形像) 또는 인형을 불태우는 행사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스페인으로부터 유래된 이 전통적인 의례가 1881년 창설된 경마 클럽, 말하자면 근대성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펼쳐졌다는 사실이다.

역시 스페인으로부터 유래된 투우가 ‘야만과 잔혹성’의 유산이자 카우디요(caudillo) 전통을 상징한다면, 서유럽과 미국의 외교관들이 여흥으로 즐기던 경마는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야구와 더

9) William H. Beezley (1987), *Judas at the Jockey Club and Other Episodes of Porfirian Mexico*,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불어 근대적 생활의 표상이었다. 최신 유행을 따르고 진보를 꾀하려는 멕시코의 엘리트층은 더욱 근대적인 방식의 오락과 여흥을 선호했다. 더욱이 1883년 경마 클럽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이 ‘근대적 공간’의 중요성, 특히 정치적 잠재성이 확인된 뒤 정계 인사들은 이곳의 동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격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1890년대에 경마는 상류층의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반면 노동자들과 하층민들은 예컨대 투계(鬪鷄) 관람을 위해서 허름한 극장(teatro frívolo)을 찾으면서 이곳을 오락과 사회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다.

주지하듯이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측근 관료, 즉 이른바 ‘과학파’(los científicos)는 가톨릭교회의 영향력, 스페인 식민통치의 유산, 토지 보유 체계 등을 멕시코의 경제적 부진과 후진성의 원

인으로 인식하고, ‘질서와 진보’의 기치 아래 교회와 원주민 공동촌락의 토지 소유를 해체시키면서 전통적 멕시코를 근대화하고자 했다. 디아스 체제는 서유럽과 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해 멕시코 농촌의 면모를 개조하려고 했지만 전통적 멕시코의 지속성과 복원력은 완강했다. 경마 클럽에서 펼쳐진 ‘유다 화형식’은 구식 축제(fiesta)의 끈질긴 지속을 확실히 입증해 주었고, 그리하여 새로운 유행과 구식 전통, 달리 말해 지배층(los de



경마 클럽의 복도

arriba, gente decente)의 주류문화와 대중(los de abajo)의 하위 문화 간에 기이한 상호작용과 충돌<sup>10)</sup>이 발생하게 되었다.

디아스 체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대중의 ‘유다 화형식’을 유산 계층과 진보에 대한 도전이자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자 했다. ‘유다 화형식’에서 유다의 상징적 의미는 사회 집단에 따라 각기 다양했지만 유다의 인형이 흔히 당대 상류층이나 정계 요인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이 독특한 대중문화 유산은 기존 질서와 기득권층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다. 가난한 대중이나 이들의 대변자를 조롱하는 인형이 때때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대개 유다의 인형은 권력자의 상징물이자 대용(代用)이었다.<sup>11)</sup>

디아스 체제의 규제와 근대화 공세 속에서도 멕시코의 대중은 ‘유다 화형식’을 전통적 관행의 유지뿐만 아니라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적 풍자와 불만 표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 ‘유다 화형식’은 사육제(謝肉祭, 카니발)와 더불어 사회적 지위의 역전, 달리 말해 기존 질서의 전도(顛倒)와 반전이 얼마간 허용된 해방의 무대였다. 대중은 화약을 채워 넣은 유다의 인형을 폭파시키거나 불태우는 상징적 처형을 통해 검열이나 보복의 우려 없이 지배 세력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또 이런 가상의 혁명은 대중의 억압과 해학을 통해 현실의 불가능한 전복(顛覆)을 달래는 효과를 지녔다.<sup>12)</sup>

하지만 ‘유다 화형식’의 도전과 전복성은 축제와 유쾌한 여흥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유다 화형식’은 ‘싱코 데 마요’(Cinco

10) Nstor García Canclini (1993), *Transforming Modernity: Popular Culture in Mexico*, translated by Lidia Lozano,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pp. 22-27.

11) Beezley, pp. 65, 106, 121.

12) Beezley, pp. 90, 103.

de Mayo, 1862년 5월 5일 프랑스 군대의 침입에 맞서 승리한 푸에블라 전투의 기념일)와 독립기념일(9월 16일) 같은 공식 기념 축제나 가톨릭교회의 축일, 그리고 ‘사자(死者)의 날’(el día de los muertos), 사육제 등과 뒤섞이면서 해롭지 않고 익살스러운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떠맡았다. 정치적·사회적 불만의 배출구치고는 매우 안전한 행사였던 셈이다.<sup>13)</sup>

한때 ‘유다 화형식’을 웃음거리로 여긴 바 있는 경마 클럽은 1893년 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세련된 형태를 띤 ‘유다 화형식’을 후원했다. 이 축제에서는 유다의 모습을 그려 넣은 열기(熱氣) 풍선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축제는 경마 클럽이 후원한 마지막 ‘유다 화형식’이었다. 그 뒤 경마 클럽은 ‘유다 화형식’을 자전거 행진으로 대체했지만, ‘유다 화형식’은 경마 클럽에 인접한 산타 훌리아(Santa Julia)에서 1910년대 혁명기에도 지속되었다.<sup>14)</sup>

성(聖)토요일의 축제로서 ‘유다 화형식’을 자전거 행진으로 대체한 경마 클럽의 사례는 디아스 체제의 근대화 지향을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속에서 기득권 층과 하층민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유다 화형식’과 사육제 속에 순치된 형태로 나타난 대중의 불만과 가상의 혁명은 결국 1910년대에 이르러 디아스 체제가 구축한 질서를 아래로부터 뒤집으려는 현실의 혁명으로 상승되었다.□

---

박구병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전공 조교수

---

13) Beezley, pp. 4, 88.

14) Beezley, pp. 109, 114.

---